

# 최근 노동시장 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

오상봉(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소장)

- ◎ 6월 취업자 수가 전년동기대비 32만 9천 명 증가
  - 고용률은 60.9%로 전년동기와 같음. 15~64세 고용률은 66.0%로 전년동기대비 0.4%p 상승
- ◎ (특징) 6월의 고용동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임
  - 20대와 50대 이상의 취업자가 크게 증가
  - 상용직 증가 및 자영업자 감소 지속
  - 제조업 및 음식·숙박업 취업자 증가 및 농업부문과 금융업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
  - 음식 및 숙박업과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예상대로 메르스의 부정적 영향을 받았지만 보건복지업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
- ◎ (비경제활동인구) 10만 4천 명 증가하였는데, '쉬었음'의 이유로 한 비경활 증가폭은 둔화(10만 2천 명)
- ◎ (연령대)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는 청년층과 50대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에 의해 주로 이루어짐
  -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32만 5천 명 증가(50대 15만 5천 명 증가, 60대 이상 17만 명)

※ 증가한 인구 대비 취업자의 비율이 축소된 상황 지속 →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체 고용률 증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

- 청년층 취업자 수는 7만 1천 명 증가. 청년층 취업자 증가는 주로 20대 초반 (20~24세)에서 이루어졌는데, 재학생 위주로 증가

※ 인구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되었는데, 이는 연령계층이 메르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

◎ (종사상 지위) 상용직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데,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세는 지속

- 상용직은 34만 6천 명이 증가. 상용직 증가는 5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지만 24세 이하 상용직도 소폭 증가. 업종별로는 제조업(15만 6천 명), 출판·영상·방송통신 (5만 2천 명), 사업서비스업(5만 2천 명)이 주도하였음

- 임시직은 증가로 전환(6만 5천 명). 임시직은 50대 이상과 24세 이하에서 증가. 업종별로는 음식 및 숙박업(5만 7천 명), 여가관련 서비스업(2만 6천 명), 건설업(2만 4천 명)에서 크게 증가하였지만, 제조업, 금융보험업(4만 명), 기타 개인서비스업 (3만 명)의 감소가 너무 큼

- 일용직 증가폭 축소(4만 7천 명). 건설업, 음식 및 숙박업(3만 8천 명), 사업서비스업 위주로 증가

-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폭 축소(3만 9천 명 증가)

-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6천 명 감소. 50대(6만 1천 명), 60대 이상(3만 2천 명) 감소. 농림어업(8만 7천 명)의 감소폭이 큼

-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 1천 명 감소

◎ (업종) 제조업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서비스업은 최근 약간 둔화를 보이기는 했지만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,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감소

- 제조업은 13만 3천 명 증가.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대(5만 7천 명), 60대 이상(4만 7천 명)에서 증가했으며, 주로 상용직(15만 6천 명) 일자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비슷하게 증가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취업자 증가가 큼
- 서비스업은 28만 3천 명 증가.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55세 이상(24만 9천 명)에서 주로 증가. 주로 상용직(20만 8천 명) 일자리로 중소기업(24만 2천 명)에서 증가
  - ※ 음식 및 숙박업과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지만, 증가폭이 축소된 것은 메르스의 여파인 것으로 판단됨
  - ※ 보건복지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는데, 특히 보건업에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됨. 이것은 메르스의 영향으로 판단됨
  - ※ 금융보험업에서 취업자는 주로 보험연금업에서 감소
  - ※ 공공행정 취업자 감소폭은 크게 축소되었음
-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2만 3천 명 감소. 주로 55세 이상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크게 감소
- 건설업은 2만 9천 명 증가. 10인 미만 사업체(5만 4천 명)에 고용된 50세 이상 남성(5만 5천 명)이 주로 증가하였음. 임시, 일용,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

###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

- ◎ 2015년 1~4월 평균 명목임금(3,297천 원)은 전년동기대비 3.0% 증가. 실질임금은 2.5% 증가
  - 상용근로자의 1~4월 평균 정액급여가 2.9% 상승에 그치고 특별급여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초과급여 상승에도 임금총액(3,482천 원)은 2.7% 상승에 그침
  - 임시·일용근로자의 1~4월 평균임금총액(1,413천 원)은 전년동월대비 0.7% 증가
  - 전체 임금인상률이 상용근로자 임금인상률과 임시·일용근로자 인상률보다 높은 것은 전년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
- ◎ 2015년 1~4월 평균 근로시간(171.1시간)은 전년동월대비 0.9%(1.6시간) 감소

- 상용근로자의 1~4월 평균 근로시간은 176.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.0% 감소
- 비상용근로자의 1~4월 평균 근로시간은 114.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.5% 감소